



OECD,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2년 3.3%, 2013년 4%로 전망하였으며, 이는 지난 전망치 보다 각각 0.2%p, 0.3%p 낮아진 수치임.

- 한·미 FTA 발효와 세계교역 증가에 힘입은 수출증가,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세,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가계구매력 제고 등을 성장요인으로 제시함.
- 그러나 유로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, 중국 경제 성장 불확실성, 유가상승,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효과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함.
- 한편, 정책적 권고사항으로는 재정건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함.

■ 또한, 한국개발연구원(KDI)도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전망치 보다 0.2%p 낮아진 3.6%로 예상하였으며, 2013년 경제성장률은 4.1%로 전망함.

-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전반적인 대내외 수요 약화로 경기 둔화를 지속한 것으로 평가함.
- 2012년에는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, 임금상승,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,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유가상승을 하방 위협으로 지적함.
- 2013년 수출 증가세 확대 및 내수 개선 추세로 견실할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함.
-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한 대외여건의 급속한 악화 가능성과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
(OECD 경제전망 발표 등, 기재부 등, 5/22)